

# 생태계 위협 '큰금계국' 대책 급하다

### 일부 '금계국'으로 알고 심어... 전국 급속도로 확산 일본서 위험종 지정... 한국 "관리대상 아니다" 방치

일본에서는 생태계나 농림수산업에 피해위험이 있는 '특정외래생물'로 지정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큰금계국'이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의 인식부족과 무관심 속에 토종식물들이 점점 자리를 잃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큰금계국은 5월에서 8월까지 도로변이나 천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다. 코스모스 꽃과 비슷한 모양으로 무리를 지어

군락을 이루거나 다른 잡초들 틈새를 뚫고 피어 있는 노란색 꽃이다. 이 식물은 북아메리카에서 온 외래종으로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뿌리와 씨앗으로 동시에 번식하기에 번식력이 왕성하고, 강한 생존력으로 본래 살고 있던 고유식물의 자리를 빼앗고 그 지역을 장악한다. 실제 도로변에 심은 큰금계국이 세력을 넓혀 주변에 있는 산이나 밭으로 급속도로 번져 나가고 있다. 심지어 잔디가 심어진 묘

지에도 큰금계국이 자리한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특정외래생물'로 지정해 허가없이 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부 관리대상생물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조사마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해 오히려 심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천변 등에 넓게 심어 관광상품으로 홍보에 만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담당주무관은 "위험정도를 정밀 조사해 생태교란생물로 지정하게 되는데 큰금계국의 경우 조사대상이 아니다.

해롭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조사대상에 포함 시키겠다"며 당장에는 조사나 관리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금계국 씨앗을 파종했기에 지금까지 금계국으로 알고 있었으며, 국가에서 위해식물로 지정하지 않았기에 큰금계국이라고 할 지라도 상관없다"는 투로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큰금계국 씨앗이 금계국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씨앗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계국은 전체가 노란색의 꽃을 피우는 큰금계국과 달리 꽃의 중심부에 자색빛이 나는 황갈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한해살이 식물이다. 한해살이이기에 생태계를



왕성한 번식력과 강한 생존력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큰금계국이 도로는 물론 주변 밭과 묘지의 잔디까지 침식하고 있다.

위협하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큰금계국에 비해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 환경부는 위해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해 씨앗 보급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순천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 아이들 놀 권리 찾기 행사 진행

순천시가 최근 제4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 찾기를 위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나가서 놀자' 올해 첫 행사를 진행했다.



순천시가 최근 제4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 찾기를 위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나가서 놀자' 올해 첫 행사를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이날 행사는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 순천'의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나랑너랑, 가지 있고, 서로 배려하는 놀이를 자-시작해 볼까?'를 주제로 준비됐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추천한 '한국 어린이가 하고 싶은 바깥놀이 50가지' 중 계절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장소와 놀이를 아동·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직접 선정했다.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나가서 놀자'는 순천만 습지, 동천, 죽도봉 공원,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서 '자연물 왕관 만들기', '대형 종이배 만들기' 등 자연친화 놀이와 '제기 만들기

고 놀기', '죽방울 놀이' 등 전통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며 부모들과 함께 놀고 느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함께한 부모들은 "집 근처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많이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다음 놀이들도 기대된다"고 즐거워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여수 내달부터 전체 어린이집 무상 보육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920여명 대상

여수시가 오는 7월부터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시행한다. 여수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총 149개로 민간·가정이 101개, 법인·시립·직장 등이 48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7,29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법인·시립·직장 어린이집 등은 무상 보육이 진행됐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부모는 매달 4만5,000원에서 7만8,000원까지 추가 보육료를 내야 했다.

여수시는 어린이집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비 6억9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무상 보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동 920여명이 보육료를 전혀 지원받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여수 도시재생 우수지자체 장관상

#### 일자리 창출 등 활성화

여수시가 도시재생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수시는 최근 열린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시상식에서 도시재생지역 활성화 분야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여수시는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주민 참여 및 마을 공동체 활동 등에 노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 이후에는 도시재생분야 브리핑이 이어졌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창원시, 전주시, 여수시가 브리핑을 했다. 권오봉여수시장은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 맛과 멋의 향유, 도시재생을 품다'라는 주제로 이순신광장, 고소동 벽화마을 조성 등을 소개했다. 2018과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수지구와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함께 설명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백년 재성을 목표로 정책 수립단계부터 사업 추진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



능한 도시재생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SBSCNBC, 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이 후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순천 경제활력으로 삶의 질 높인다

### 창업보육센터 건립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

시민들의 삶에서 경제, 문화, 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여러 생활 환경중 '경제적 안정'은 삶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순천시는 경제 활성화에 중요성을 시정철학에 반영하고 있다. 생태와 자연을 지켜온 순천시는 생태와 자연을 경제활력으로 이어간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뿐 아니라 누구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끔 한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창업 인프라 구축으로 창업보

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 발굴에서 육성, 지원 및 스타트업 기업 창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창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실리온밸리 중관촌을 벤치마킹하고 올 1월 현지 창업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이 순천에 머무르면서 교류와 투자가 가능한 가장 '마네를럽인 순천'을 운영할 계획

도 가지고 있다.

시는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비창업자들의 사전 입주공간 마련을 위해 청춘웃장, 청년센터, 도시재생구내내 시설 등을 활용해 VR체험존을 비롯한 다양한 창업공간을 확대 조성중이다.

순천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순천형 직장체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경험과 공공기관 근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행정인턴, 찾아가는 취업특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작은 거인 더

드림 프로젝트, 청년 회사로 프로젝트, 안심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도 추진중이다.

지역의 신중장년재취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원스톱 지원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농업의 활력을 위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발표식품산업과 지원센터를 2020년 건립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 발표산업과 관련된 우리술, 김치류, 장류 등 연구가 집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순천시는 지역내 순환경제를 위한 순천 지역화폐,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클릭! 고흥 소식



### 보성교육청-보성경찰서 학원 통학차량 안전점검

보성교육지원청은 최근 보성경찰서와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하차확인장치 설치·작동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보성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보성경찰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통학차량 관련 업무공유를 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 고흥 최고령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고흥군은 최근 동강면 장동마을을 찾아 최고령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문 대상자인 박임심 할머니는 여순사건으로 희생한 전몰군경 기동섭

씨의 배우자로 10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식사를 직접 책임 지는 등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송귀근군수 방문에 "꽃길은 걷는 것 처럼 기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준연 기자



### 순천대 상반기 교직원 역량강화 평가

순천대학교는 최근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획력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 '수준별 보고서 작성 능력

향상 교육' 이후 대학 직원들의 기획력 역량 강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이 수여되며 6급 이하 승진 시험에 30% 반영된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